「경영사학」 제27집 제2호(통권 62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12. 6. 30. pp. 235~258

논문접수일 : 2012년 04월 23일
최종수정일 : 2012년 06월 05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6월 08일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

양성국* · 김봉현**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김만덕이 성공한 CEO로서 보여준 기업가정신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녀가 지녔던 기업가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김만덕의 생애와 김만덕이 CEO로 역할을 수행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정신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업가정신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조선시대 최초 여성 CEO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정신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을 연구한 Chrisman et al.(1998)이 제시한 특성 중에서 창업 경험을 제외하고 인성적 특성, 가치 및 신념, 능력, 행동적 특성 등 4가지 관점에서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정신을 분석하였다.

김만덕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과 작품들은 김만덕의 삶과 행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김만덕의 삶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가운데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로서의 정신적 가치를 발굴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다만 제한된 지면의 사료나 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평가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김만덕, 여성 CEO, 기업가 정신, 제주도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sungkuk@jejunu.ac.kr, 064-754-3121, 제1저자.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조교수, bong0711@jejunu.ac.kr, 064-754-3148. 교신저자.

Ⅰ. 서 론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할 만큼 여성의 사회적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지적•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 자기개발과 자기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 여성특유의 섬세함,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변화의 주체 세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역할과 사회 참여가 확대될수록 사회 및 국가의 경쟁력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 출신으로 기녀의 신분을 극복하고 유통업을 개척하여 성공한 기업가이자 상도를 실천한 경제인, 전 재산을 지역 사회에 환원한 지역지도자, 여성의 굴레와 한계를 뛰어 넘어 자유인으로 살았던 여성 김만덕에 대한 평가 작업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올해는 CEO 김만덕이 서거한지 200주년이 되는 시점이라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의 사료나 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사료나 자료에 기초한 이야기의 확대 및 재생산 과정에는 연구자의 상상력이 가미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김만덕과 관련된 사료나 자료들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기」, 「번안집55권•만덕전」 등의 사료나 KBS 드라마 '거상 김만덕,' 현대에 와서 출간된 단행본과 세미나 자료 등에서 제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김만덕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과 작품들은 김만덕의 삶과 행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김만덕의 삶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가운데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로서의 정신적 가치를 발굴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작업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만덕이 성공한 여성 CEO로서 보여준 기업가정신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녀가 지녔던 기업가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0여 년 전 조선시대 최초 여성 CEO로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을 분석하였다[1].

즉, 200여 년 전 조선시대의 여성이 받았던 사회적•관습적 차별을 극복하고 제주 및 전국에서 존경받는 기업가로 성공한 김만덕이라는 한 여성의 삶을 재조명함으로

1) 조선 최초의 여성 무역상 또는 CEO로 소현세자의 부인인 '민회빈 강씨'를 꼽는 경우도 있다.(참고 : 김용상의 "민회빈 강씨" 등).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일반 여성 중에 최초 CEO란 의미로 김만덕을 사용하고자 한다.

써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CEO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보려는 것이다.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김만덕의 생애와 김만덕이 CEO로 역할을 수행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정신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업가정신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조선시대 최초 여성 CEO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구성하면서 한국경영사학회에서 발행하는 「경영사학」에 게재된 많은 논문을 참고하였다(고광명 2008; 김성수 2009; 김한원 2011; 노부호 2010; 이민수 2011)

본 연구를 통하여 단지 의녀 김만덕, 나눔의 미덕과 배품을 실천한 기부 천사 김만덕 등 단순한 선행의 귀감을 칭송하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선시대 최초로 성공한 여성 CEO의 길을 걸었던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과 기업 CEO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II. 김만덕의 생애와 시대적 특징

1. 김만덕의 생애

김만덕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김만덕의 생애와 관련된 사료들에 기초하여 인간적 특성이나 CEO의 자질들을 분석하고 있다. 김만덕이 가졌던 기업가정신의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만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만덕의 생애를 고난 속에서 운명을 개척하면서 CEO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던 기간, 본격적으로 CEO로 활동한 기간, CEO 활동을 통해 얻은 것들을 사회로 환원시킨 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1)운명개척기

김만덕은 조선 영조 15년(서기 1739년)에 중개상으로 활동하던 김응열의 딸로 태어나 순조 12년(서기 1812년)에 생을 마감한 제주 여성이다. 김만덕 부모와 관련된 내용들은 책마다 서로 다르게 기술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김만덕의 아버지는 장사를 다니다 배가 난파되어 죽었으며 어머니는 영조 26년(서기 1750년)에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다.(주희춘 외 2010)

그 후 친척 집에서 겨우 목숨을 이어가던 김만덕은 퇴기 월중선에게 의탁하여 살게 되었고 관기로 생활하게 된다. 관기로 생활하던 김만덕은 자신의 원래 신분이 양

인이었음을 알게 된 후, 23세(서기 1762년) 때 제주목사 신광익에게 여러 차례 탄원하여 양인의 신분을 되찾았다.

관기로 생활하면서 평생을 마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가에 간곡히 호소하여 기적(妓籍)에서 이름을 없앴다는 것은 김만덕이 매우 확고한 주체성을 가진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박무영 외 2004) 왜냐하면 직업이 신분이었던 조선 시대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만덕은 자신의 설득력을 통해 기녀에서 양인으로 삶의 형태를 바꾼 것이다.

즉, 김만덕은 조선 시대의 제도와 질서에 순응하기 보다는 자신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그리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의 정신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인의 신분을 회복한 뒤 김만덕은 한 남성과 결혼해 평생을 그 그늘 아래에서 사는 대신에 독신으로서의 삶을 선택한다. 이러한 사실 또한 김만덕이 주체적인 삶의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비나 기녀 등이 아닌 여성이 조선 시대에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덕이 독신을 선택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과 더불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제도를 넘어설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CEO 활동기

김만덕은 전통사회에서 여성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직업이나, 가부장제 사회가 필요로 했던 여성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객주를 운영하면서 객주를 드나들던 상인들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나갔다.(이덕일 2003)

김만덕은 관기 생활을 청산한 후 제주 건입포 일대에 객주를 차려 사업을 시작하였다. 건입포란 현재 제주시에 있는 동문시장과 2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건입포가 육지에서 배가 당도하는 곳이라면 동문시장은 이곳에 도착한 육지의 각종 산물이 거래되던 곳이었다. 객주란 중간상을 하는 일종의 도매상을 의미하는데 병영상인[2] 들은 이들을 대상이라고 표현하였다.(주희춘 외 2010)

김만덕은 객주를 차린 후에 육지에서 오는 물건을 산후에 제주에서 파는 일을 하려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관아에 특별세를 내야만 금난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 토착 상인들이 이미 생필품에 한하여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김만덕은 기녀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녀와 양반층 부녀

2) 전라남도 강진을 주 근거지로 활동했던 남부지역 보부상의 핵심 상인 집단을 말하는데, 북의 개성상인과 쌍벽을 이루는 상인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들을 대상으로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공급하여 큰돈을 벌게 되었다. 즉, 김만덕은 제주도와 육지, 엄밀히 말하면 강진, 영암, 나주 등 전라도 지역과 제주를 오가며 가격 차이가 심한 물건을 직접 사다가 파는 방식을 통하여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게 된다.

조선 시대에 여성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로 김만덕은 여성에게 주어진 한정된 역할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 변화를 읽는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유통업을 개척하였던 것이다. 또한 강인한 추진력으로 만덕은 유통업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김경애 2006)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김만덕이 기녀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유통업에 도전하여 막대한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경제 활동에서의 윤리적 덕목들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정신 또는 과거 우리의 상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변종헌 2004)

요약하면 김만덕이 CEO로 성공하는 과정에서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조선시대라는 점과 김만덕이 여성이었다는 점, 그리고 육지부와의 접근 수단이 떨어지는 제주도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만덕이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사회 환원기

제주는 워낙 토질이 척박하고 농사지을 땅이 적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자주 기근에 시달려야했다. 특히 정조 16년(서기 1792년)부터 19년까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흉년이 계속되었다. 정조 16년 가을에 전례 없는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수 천 명이었고, 정조 17년 8월에는 태풍으로 '정의' 와 '대정' 두 고을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정조 18년 8월에도 큰 바람과 해수가 몰아쳐 제주에 어려움을 주었다.

김만덕은 정조 18년(서기 1794년)에 제주에 대기근이 들자 '천금' 을 풀어 육지에서 쌀을 구입해 오도록 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김만덕 덕분에 1만 8천명의 제주 주민들이 생명을 구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주희춘 외 2010)

김만덕이 제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 자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당시 김만덕이 곡식 500석을 사들여 50석은 친척들에게 나눠주고 450석은 관아에 바쳤다고 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제공의 「만덕전」에 만덕이 천금을 내놓아 육지에서 쌀을 사들여, 그 중 십분의 일로는 친척들을 살리고 나머지는 모두 관아에

바쳤다고 나와 있을 뿐이다. 또 「정조실록」에도 만덕이 재물을 풀어 굶주진 백성들의 목숨을 구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제주 주민을 구휼한 공을 인정받아 김만덕은 금강산과 한양을 구경하게 된다. 한양에서 돌아온 만덕은 객주집을 그대로 운영하며 남은 여생을 자선사업에 주력하였으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에 이르렀고, 그냥 '만덕할머니'로 통했다. 이러한 그녀의 활동이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부친 응열(應悅) 공에게는 가의대부(嘉義大夫)[3]를 구휼사업을 도운 오빠 만석에게는 가선대부(嘉善大夫)[4]를 추증했다.(김건우 2003; blog.daum.net/jib17)

조선시대 한반도 최변방 중의 한 곳인 제주에서 그것도 기생 출신 여자가 재물을 풀어 백성을 구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실록에 기록하였다는 점 또한 매우 이례적이었다. 여성이 쉽게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조선후기 사회에서 김만덕과 같은 여성의 성공 신화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신병주 2012)

조선시대 최고의 통치자인 정조 임금이 친히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체제공이 김만덕의 일생담을 「만덕전」이라 하여 편찬하여 주었으며, 조선의 대표적인 문장가 정약용, 이가환, 박제가 등이 그녀를 위한 시를 남겼다. 게다가 사후에는 추사 김정희가 '은광연세(恩光衍世)'라는 편액을 써주기까지 했다. 김만덕이 당대 최고의 인물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김만덕의 삶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는 제주여성의 표상인 의녀반수 김만덕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고 제주여성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1980년부터 「김만덕상」을 제정하여 봉사부문과 경제인부문 2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봉사부문은 경제적•물질적 도움보다는 순수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를, 경제인부문은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베풂의 실천으로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3) 가의대부는 조선시대 문관 종2품 상(上)의 관계명을 말한다. 조선 초부터 가정대부(嘉靖大夫)라 하였으나, 1522년(중종 17) 명(明)나라 세종이 즉위하면서 '가정'을 연호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하여 가의로 고쳤다. 이에 해당하는 관직은 돈령부 ·의금부 ·경연 ·춘추관 ·성균관 등의 동지사(同知事), 6조의 참판, 한성부의 좌우윤, 사헌부의 대사헌, 8도 관찰사 등이다.

4) 가선대부는 조선시대의 종2품 아래의 관계(官階)를 말한다. 초기에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관계로도 사용하였다. 이 관계에는 군(君) ·위(尉) ·동지사(同知事) ·참판 ·좌우윤(左右尹) ·대사헌 ·내각제학(內閣提學) ·제학 ·세자좌우부빈객(世子左右副賓客) ·부총관(副摠管) ·훈련대장 ·수어사(守禦使) ·통제사 ·개성부관리영사(開城府管理營使) ·군문중군(軍門中軍) ·금군별장(禁軍別將) 등이 해당 된다.

이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년까지 국비 4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140억 원을 투자한 김만덕기념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김만덕기념관 주변에는 김만덕이 주로 활동했던 객주터 재현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2. 시대적 특징

김만덕이 살았던 조선후기 영조, 정조 시대는 변화의 시기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전통적인 산업인 농업기술에서 이앙법(移秧法)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지금까지 정치이념의 주류를 이루었던 유학을 대신하여 실사구시를 부르짖는 실학사상이 들어오게 된다.

또한 임진왜란과 실학의 영향으로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유통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그리고 상업과 유통 경제의 발달에서 빼 놓을 수 없었던 것이 포구 무역과 객주업이었다.

여기서는 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에 일어난 변화 중에서 김만덕과 관련되는 부분인 신분제의 변화와 상업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마지막에는 김만덕이 주로 활동했던 제주사회의 특징을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1) 신분제의 변화

조선 시대는 유학을 정치이념으로 하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다. 그 당시의 사회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조선왕조 구성원의 대부분은 농민이 되고, 아주 소수의 양반들이 군주를 중심으로 하여 농민들의 농업생산력을 바탕으로 모든 권력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전형적인 전제군주국이었다. 인구 분포를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국민 전체인구 중에서 양반이 차지하는 비중은 5%를 넘지 않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후유증 때문에 발생한 난국을 타개하고 궁핍해진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명첩(空名牒)을 발행하여 관직과 신분을 팔기 시작했다. 즉, 임명장에 이름을 쓰지 않고 두었다가 국가에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에게 관직과 신분을 주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국가로서는 나라를 운영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었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는 그 동안 확고부동한 특권을 누려오던 양반들의 신분이 위태롭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사회 전체의 신분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신분제의 변동은 곧 조선사회 전체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17세기를

지나면서 전체 인구의 70%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양반이 되면서 양반의 신분에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신분제를 바탕으로 지탱해오던 조선사회는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신분제 변화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김만덕이 기녀의 신분에서 양민으로 신분을 변화시키는데도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상업의 발달

조선 시대에 상업은 신분제사회에서는 무척 천시하던 직업이었는데, 신분제의 변동과 자본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세상이 되면서 상업의 중요성도 새롭게 인식되게 되고 발달하게 된다.

그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엄청난 두 전란을 겪으면서 발달한 도로망의 확충에 있다. 조선 후기의 도로는 특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도로망의 확충은 유통경제의 발달을 초래하게 되고 유통경제의 꽃인 상업의 발달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상업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부자 상인들을 생산해 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들 역시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신분상승을 꾀하게 된다. 따라서 상업의 발달도 신분제의 와해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상업 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중개업 허가제, 대동법 시행으로 인한 공인성장 및 육상・해상교통의 발달, 상설점포인 포자의 발달, 객주의 번성 등이다.[5)]

(1) 중개업 허가제

조선시대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양민이 중개인이 되려면 해당 관청에 중개업 허가를 신청하고 관인이 찍힌 호소문을 받아야 했다. 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중개하다가 적발되면 곤장 60대를 맞고 받은 구전을 모두 몰수당했다. 또 저울 등 각종 도량형기를 규정대로 만들지 않는 장인도 장형 70대를 받았고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원도 처벌을 받았다.

(2) 대동법 시행으로 인한 공인성장 및 육상・해상교통의 발달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세금이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 등으로 대납되는 것들을 한양까지 운반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부는 주요지점에서 모아놓고 지정된 공인이 물건을 소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활발한 상업활동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나머지 일부는 서울로 운송되는데 그 운송을 위해 강가가 발달하게

5) 상업의 발달과 관련된 많은 부분은 blog.daum.net/zhy5532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되어 시장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한편, 대동법의 시행에 따라 상품 유통이 촉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폐가 전면적으로 유통되었다. 대동미 대신 동전을 수납할 수 있었던 것이 화폐 유통을 촉진시킨 면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동법 실시 이후 상품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수요가 커졌고 그 때문에 주화가 지속적으로 유통되었던 것이다.

육상교통의 경우 영조 46년(서기 1770년)의 「도로고(道路考)」에 의하면 전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서울-의주, 서울-경흥 서수라, 서울-동래, 서울-제주, 서울-평해, 서울-강화의 6대로였다.

한편 해상에서도 18세기 이후에는 해남에서 제주에 이르는 뱃길 등 전국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경강을 중심으로 하는 세 가지 해로가 완전하게 연결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이처럼 육로와 해로 그리고 간선도로망을 통하여 전국은 육상과 해상으로 완전히 연결되고 있었다.

⑶ 상설점포인 포자의 발달

17세기 이전에도 상설점포인 포자가 서울이나 개성, 평양 등에 있었으나 17세기 이후에는 급속도로 발달하였다. 포자가 설치되는 곳은 대개 상품 유통이 활발하여 상품이 모여드는 집산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민간인에 의해 운영되는 포자는 상업적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었지만, 관영포자는 유통뿐만 아니라 식리 활동을 통해 관아 재정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었다.

포자는 동전 유통을 확대시키고 식리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윤으로 지방관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설치한 상업기구로 장시발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장시의 상설시장화를 촉진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포자는 당초 의도했던 방향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양반이나 아전들에 의한 금품요구 같은 비리가 발생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운영과정에서 많은 폐단을 남겨 폐지되었다.

⑷ 객주의 번성

객주는 각처에서 모여드는 객상들에게 거처할 곳을 제공하고 물건을 보관하는 일, 매매를 성립시키는 일 등을 업으로 하는 상인이다. 그 중에서 창고 보관과 물품 운송은 외탁판매에 부수되는 업무다.

거래량이 많을 경우 시장에서 처음 만난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당사자들끼리 바로 거래하는 것을 매우 불안하게 여긴다. 객주는 위탁판매를 맡아 이러한 쌍방 간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객주와 고객 사이에 신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은 객주가 위탁 판매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행하는 금융 서비스로서 물품 판매를 위탁받을 때 물품에 대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가도금(假渡金), 위탁판매를 조건으로 매상하는 전도금(前渡金) 또는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부금(貸附金) 등이 있다.

객주는 예금 업무도 담당했다. 매각 금액을 물주가 당장 가져가지 않고 맡길 경우에 객주는 그 기간 동안 예금한 데 대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준다. 어음을 발행하는 자들도 객주였다.

3) 제주사회의 특징

김만덕과 관련된 사료들을 종합해 보면 조선 후기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만의 독특한 사회적 환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던 후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일 정도로 유연한 환경이다.(김방희 2009)

첫 번째는 김만덕이 관기 생활을 하다가 양민으로 신분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각종 기록에 따르면 김만덕은 자신이 양민 출신이었다는 것을 안 후 제주목 관아에 지속적으로 읍소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조선 신분제가 붕괴되는 초기 단계이기는 했으나, 개인적인 탄원에 의해 본래의 신분을 회복하는 예를 찾기는 힘들었다. 이런 점에서 당시 제주목의 신분제에 대한 유연한 태도는 김만덕이 신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여성이 거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점도 당시 제주가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보인다. 당시까지만 해도 주막 같은 일부 예외적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여성의 경제 활동은 원천 봉쇄돼 있었다. 여성이 상업에 종사한 기록이나 상업에서 성공한 기록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는 여성의 경제 활동 자체에 대해서 본토만큼 강한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제주의 경제 구조상 여성들은 농사를 짓거나 물질을 하는 등 농수산업을 주도했을 것이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상거래에 참여하는 등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적극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가능했다.

왜냐하면 제주는 척박한 토양과 소규모의 토지에서 밭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지극히 낮았고 험한 바다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반과 상민, 적자와 서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의 구분이란 것이 사실상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평등과 공정의 분위기는 제주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였다고 생각된다.(김정숙 2002)

Ⅲ. 김만덕의 기업가정신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선 시대 최초 여성 CEO로 성공한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가정신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김만덕의 삶에 대한 자료와 시대적 배경 등에 기초하여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을 찾아보았다.

1. 기업가정신의 개념 및 연구차원

1) 기업가정신의 개념

기업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본의 조직단위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먼저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가는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 기업가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을 말한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개념은 기업이 처해 있는 국가의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기업가정신이 경제 발전의 주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나이트(Knight 1921)에 따르면 기업가는 불확실성 하에서 위험을 계산하고 결정을 내리며 산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하며,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기업가 활동에 따라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슘페터(Schumpeter 1934)는 기업가를 혁신 주체로 규정하고 기업가는 창조적 파괴 과정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슘페터에 따르면 경제발전은 생산방식의 새로운 결합 또는 혁신을 촉진시키는 기업가정신에 의해 달성된다. 기업가의 혁신활동은 신제품의 개발,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 신시장의 개척, 새로운 공급자의 확보, 새로운 기업 조직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기업가정신에 대한 OECD 보고서(1998)에서 “기업가는 경제에서 변화와 성장의 주체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생성•확산•활용을 가속화한다. 이를 통하여 기업가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경제활동의 범위를 확장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배종태와 채민석(2009)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을 기업가정신"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업가정신이란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혁신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의 의지 또는 활동" 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김주미 외 2011)

〈표 1〉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에서는 공통적으로 '새로움', '창조', '위험', '기회', '자원', '불확실성' 등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연구자	정의	중심내용
Schumpeter(1934)	생산적 요소의 새로운 조합을 발견하고 촉진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	새로운 결합촉진
Drucker(1985)	새로운 부 창출능력을 가진 기존 자원의 할당을 포함한 혁신의 한 행동	혁신(자원 할당)
Hisrich(1985)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가치창출
Stevenson과 Jarillo-Mossi(1986)	기회를 개발하기 위해 자원을 결합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가치창출
Amit et al.(1993)	불확실하고 모호한 환경 하에서 새롭고, 독특하고 가치 있는 자원의 조합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	자원의 조합
Timmons(1994)	기회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접근방법과 균형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추론/행동 방식	기회추구, 사고/추론/행동
Kao(1995)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가치창출
Lumpkin과 Dess(1996)	조직의 신규진입	조직체 창조
Sexton과 Smilor(1997)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하는 행위	사업기회 추구와 성장성
배종태 · 차민석 (2009)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미 행동양식	기회추구, 사고방식, 행동양식

출처 : 배종태 · 차민석(2009), "한국형 기업가정신 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 의 자료를 수정

2) 기업가정신의 연구차원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가 확대되면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초기 연구는 단일차원 관점에서 시작하여, 최근의 대다수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구성 요소를 다차원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 정의가 기능적 측면과 더불어 대상이라는 측면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학자들은 개인과 조직 차원으로 나누어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김주미 외 2011)

(1) 개인 차원의 연구

기업가정신의 초기 연구에서는 기업가 개인의 심리, 인성적 특성, 경험 및 경력 특성, 사회 심리적 특성 요인 규명 등 기업가정신과 관련되는 개인의 구성 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특히 Chrisman et al.(1998)은 기업가정신의 개인 특성 구성 지표를 인성적 특성, 가치 및 신념, 능력, 경험 및 교육, 행동적 특성으로 정의했다.

〈표 2〉개인 차원의 기업가정신 구성 지표

기업가 특성	세부 항목
인성적 특성	자율성 자신감 성취/소속/권력욕구 위험감수성 모호성에 대한 인내
가치 및 신념	사회공헌 권력, 안전, 신분, 부 등
능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능력 관리/생산/마케팅/기술/재무적 능력 등
경험 및 교육	연륜, 부모의 창업경험 창업경험 유사직위 경험 산업경험 창어전 훈련 등
행동적 특성	문제의 핵심집중 능력 의사결정과정 유연성, 목표지향성 조직화, 문제분석 등

출처 : Chrisman et al.(1998)

⑵조직 차원의 연구

조직 차원의 기업가정신 구성 지표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조직 차원의 기업가정신 구성 지표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자율성, 경쟁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표 3〉 조직 차원의 기업가정신 구성 지표

기업가 특성	세부 항목
혁신성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프로세스 개발을 목표로 한 실험과 창조적 프로세스를 통한 새로운 것을 기꺼이 하는 마음
진취성	예측 가능한 결과의 지식 없이 실행하는 의사결정 활동 : 위험을 감수하는 벤처프로세스에서 구체적인 자원의 몰입을 포함하는 실행
위험 감수성	미래 수요의 예측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을 가진 선도자의 진취적 특성
자율성	개인이나 팀이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가적 감각으로, 조직의 관료주의를 탈피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기업가적 독립성
경쟁적 공격성	시장에서 경쟁사를 압도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집중적으로 경쟁하는 기업의 성향

출처: Dess와 Lumpkin(2005), Covin과 Slevin(1991), Lumpkin과 Dess(1996), Miller(1983)

한편, Timmons & Spinelli(2009)는 이러한 연구 차원을 종합하여 성공적인 기업가 및 팀의 핵심 특성을 〈표 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배수의 진을 치고 사업에 임하는 헌신/몰입과 결단성,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과 기회에 대한 집착, 현 상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창의력과 적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속성들은 성공한 기업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바람직한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성공적인 기업가 및 팀의 핵심 특성

◆헌신/몰입과 결단성
결단성, 규율/원칙성 끈기,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집요함 몰입과 자발적 희생

◆용기
도덕성
두려움 없는 실험정신
실패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위험상황에서도 생기는 강한 호기심
◆기회에 대한 집착
기회파악 능력
고객욕구에 대한 지식
시장 지향성
가치창조 및 확장에 대한 집착
◆위험, 모호성, 불확실성의 수용
계산된 위험감수, 위험 공유/분산/극소화
불확실성과 비체계적 구조에 대한 수용/적응
스트레스와 갈등의 수용
문제해결 및 대안조정 능력
◆창의력, 자생력, 적응력
비전통적인 열린 사고, 수평적 사고, 혁신성
현 상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 추구
적응력
개념화 능력과 꼼꼼함
◆남보다 앞서려는 동기
목표/결과 지향성, 성취와 성장에 대한 강한 욕구
타인에게 경쟁자보다 지원자라는 인식을 주는 능력
자신의 강점/약점 파악 능력
자신의 주관과 유머감각
◆리더십
솔선수범
남의 탓보다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사람
성실성과 정직성, 신뢰감, 인내력
팀을 구축하고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웅을 만드는 능력

출처 : Timmons와 Spinelli(2009)

2. 김만덕의 기업가정신

여기서는 개인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을 연구한 Chrisman et al.(1998)이 제시한 특성 중에서 창업 경험을 제외하고 인성적 특성, 가치 및 신념, 능력, 행동적 특성 등 4가지 관점에서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정신을 분석하였다.

1) 인성적 특성

Chrisman et al.(1998)이 제시한 기업가정신의 인성적 특성에는 자율성, 자신감, 성취•소속•권력욕구, 위험감수성, 모호성에 대한 인내 등이 포함된다.

김만덕은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제주가 갖는 지리적 한계와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태생적 굴레를 극복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과감한 도전과 성취는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김만덕은 운송 체계에 기초한 유통망이 상업발전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투자한 분야도 바로 유통업이다. 김만덕이 주목한 것은 바로 포구가 지닌 유통망으로서의 가치였으며, 이를 위해 포구에 객주를 차리게 되었다.(이덕일 2003)

이처럼 김만덕이 18세기 조선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세상을 꿰뚫는 안목을 바탕으로 유통업을 개척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찰력이 강한 추진력과 결합되면서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른바 기업가 정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기업 CEO들에게 김만덕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 가치를 찾고 일단 새로운 가치를 찾았다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해서 기다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보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부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려면, 남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2) 가치 및 신념

Chrisman et al.(1998)이 제시한 기업가정신의 가치 및 신념에는 사회공헌, 권력, 안전, 신분, 부 등이 포함된다.

김만덕은 막대한 부를 가졌지만 만덕 자신은 늘 검소하게 생활하였는데,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해 절약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는 것이 생활철학이었다.(고승희 2005)

또한 김만덕은 부를 축적하는데 있어 상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데 어긋남이 없었다. 제주도민은 만덕의 객주를 통해 육지의 물건을 손쉽게 얻었고 또 제주물건도 정당한 시세로 팔 수 있어서 제주도민의 이익 증진에도 부합하였다고 생각된다.(제주

도 1989)

김만덕은 금강산 구경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검소한 생활을 잊지 않았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쌀을 주는 등 자선사업에 주력하였다.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다” 는 김만덕의 생각 속에서 그녀가 재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김건우 2003)

요약하면 김만덕은 자신이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칭송을 한 몸에 받았고, 명예직이었으나 ‘의녀반수(醫女班首)’ 라는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벼슬에 올라 주변부에서부터 중심부로 우뚝 서게 되었다.

오늘날의 기업 CEO들에게 김만덕이 전하는 메시지는 번만큼 베풀고, 세상과 더불어 이익을 나누라는 것이다. 부를 이루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는 더욱 어렵다. 어렵게 구축한 부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는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즉 부를 축적하는 일 못지않게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에 공헌하라는 것이다.

3) 능력

Chrisman et al(1998)이 제시한 능력에는 의사소통능력, 대인능력, 관리 • 생산 • 마케팅 • 기술 • 재무적 능력 등이 포함된다.

김만덕이 유통업을 개척 • 운영하면서 신용 본위의 원칙을 지켜나간 것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넘어서 사업의 장기적 생존 및 발전 가능성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용을 토대로 절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재물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권명중 2002)

김만덕은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이와 같은 신용 본위의 경영철학에 입각한 장기적 비전을 지니고 있었다. 만덕의 장기적 비전에 기초한 사업 경영은 오늘날 기업가들이 지녀야 하는 전형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제주가 어업과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김만덕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상업에 뛰어들었다. 유통업을 시작한 후 성공한 요인 중에는 관기로 있으면서 평소 관리들과 맺어둔 친분과 대인관계 능력도 중요한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김만덕은 오늘날의 마케팅측면에서도 능력을 보여준다. 김만덕은 기존에 제주 상인들이 갖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조선 팔도 전체를 제주도의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미개척 시장으로 보았다. 또한 반대로 육지에서는 생산되지만 제주도에서는 나지 않는 물품을 놓고 본다면 제주도 역시 미개척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김만덕은 제주도에서만 나는 특산품을 육지에 내놓아 판매하고, 제주도에서는 나지 않는 물품을 육지에서 사 들여와 판매한다면 자신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만덕이 유통업에서 성공한 전략은 매점매석이었다. 오늘날에는 매점매석이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지만, 조선 후기에는 각광을 받는 경영전략이었다. 매점매석은 단순히 자금만 많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정보력 • 판단력 • 결단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김종성 2011)

오늘날의 기업 CEO들에게 김만덕이 전하는 메시지는 기존의 시장, 제품, 서비스, 소비자 속에서도 사고의 전환을 통해 얼마든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관습적 사고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경영을 해 나가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4) 행동적 특성

Chrisman et al.(1998)이 제시한 행동적 특성에는 문제의 핵심집중 능력, 의사결정 과정, 유연성, 목표지향성, 조직화 및 문제 분석 등이 포함된다.

슘페터가 제시했듯이 창조적 파괴를 통한 변화의 추구, 모험과 도전을 통한 발전 기회의 창출 등이 현대의 기업가들이 지녀야 하는 덕목들이다. 오늘날에 와서 김만덕을 18세기 조선의 성공한 최초 여성 CEO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덕이 당시에 보여주었던 기업가로서의 위와 같은 자질 때문일 것이다.(변종헌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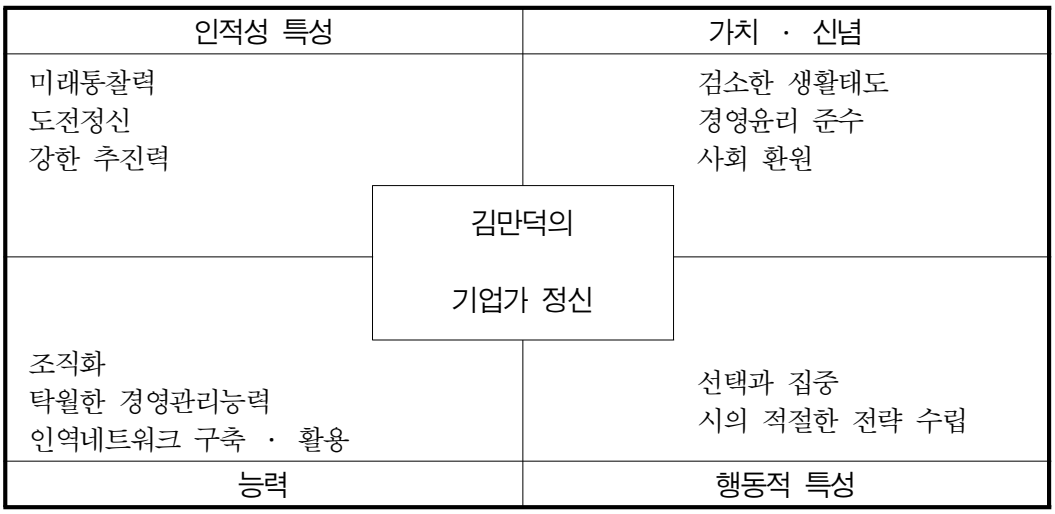
김만덕은 제주도의 특산물인 녹용, 귤, 전복 등을 시세 변동에 따라 때맞춰 육지에 내다 팔고 또한 제주도 사람 특히 소비 규모가 큰 양반 사대부와 부유한 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치품이나 장신구 등을 육지에서 사들여 오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려 나갔다. 김만덕은 제주도와 육지 사이의 물품 수요와 물가 변동을 잘 알아 알맞은 때에 물품을 사고팔았다. 김만덕은 시기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여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오늘날의 경영기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상업 활동을 통해 시장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다진 김만덕은 이후 관가의 물품을 조달하는 권리를 얻는 한편으로 제주를 드나드는 선상(船上)의 물품을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여객주인권(旅客主人權)과 포구의 상품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포구주인권(浦口主人權)까지 획득했다.(이덕일 2003)

오늘날의 기업 CEO들에게 김만덕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경쟁자가 없고 기존의 시장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블루오션 전략

을 구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김만덕의 기업가정신 특성



IV. 결 론

본 연구는 제주 출신으로 기녀의 신분을 극복하고 유통업에 뛰어들어 성공한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정신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녀가 지녔던 기업가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0여 년 전 조선시대 최초로 성공한 여성 CEO로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김만덕이 CEO로 역할을 수행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김만덕의 생애를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김만덕이 가졌던 기업가정신의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만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만덕의 생애를 고난 속에서 운명을 개척하면서 CEO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던 기간, 본격적으로 CEO로 활동한 기간, CEO 활동을 통해 얻은 것들을 사회로 환원시킨 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한편, 김만덕이 살았던 조선후기는 변화의 시기였는데 여기서는 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에 일어난 변화 중에서 김만덕과 관련되는 부분인 신분제의 변화와 상업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상업 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중개업 허가제, 대동법 시행으로 인한 공인성장 및 육상•해상교통의 발달, 상설점포인 포자의 발달, 객주의 번성 등을 들 수 있다.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정신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을 연구한 Chrisman et al(1998)이 제시한 특성 중에서 창업 경험을 제외하고 인성적 특성, 가치 및 신념, 능력, 행동적 특성 등 4가지 관점에서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정신을 분석하였다.

첫째, 인성적 특성 측면에서 김만덕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 가치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가치 및 신념 차원에서 김만덕은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였고, 상도를 실천하였으며 사업에서 성공하여 축적한 부를 제주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아낌없이 사용하였다. 즉 자신이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시켜 세상과 더불어 이익을 나누었다.

셋째, 능력 차원에서 보면 김만덕은 기존 제주상인들과는 달리 사업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중시하여 신용 본위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평소의 대인관계능력, 마케팅 측면에서 사업 수완을 보여주었다.

넷째, 행동적 특성 차원에서 김만덕은 선택과 집중, 블루오션 등의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결실을 맺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정신은 인생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조선 시대 최초로 성공한 여성 CEO인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과 기업 CEO들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만덕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과 작품들은 김만덕의 삶과 행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김만덕의 삶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가운데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로서의 정신적 가치를 발굴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다만 제한된 지면의 사료나 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평가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고광명, 2008,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 「경영사학」, 제23집 제2호, 221-243.

고승희, 2005, “송도치부법에 투영된 개성상인의 경영사상”, 「기업경영연구」, 제12권 제2호, 31-54.

권명중, 2002,「거상 임상옥의 상도 경영」, 거름.

김건우 편역, 2003,「김만덕 :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 문자향.

김경애, 2004, “시대와 불화하지 않으면서 시대를 뛰어넘은 여성 기업인 김만덕”, 함께 가는 여성.

김경애, 2006, “현대사회에서 김만덕 삶의 의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만덕과 파 워여성 토론회.

김방희, 2009, “드라마 김만덕과는 다른, 제주인 김만덕 -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해석하는 김만덕 코드 7가지 - ”.

김성수, 2009, “김재철 회장의 생애와 기업가정신 연구”, 「경영사학」, 제24집 제2호, 197-238.

김용상, 2012,「민회빈 강씨」, 멜론.

김정숙, 2002,「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 제주시.

김종성, 2011, “역사 그 밖의 이야기들 2 : 제주 거상 김만덕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 주,” 오마이뉴스, 2011.3.24.

김주미 • 박재필, 2011, “기업가정신 지수 표준 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김한원, 2011, “담연 최종건 회장의 생애와 기업가정신”, 「경영사학」, 제26집 제4호, 399-434.

김효정, 2006, “파워여성의 사회적 역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만덕과 파워여성 토론회.

노부호, 2010, “유일한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경영사학」, 제25집 제4호, 5-35.

박무영 • 조혜란 • 김경미, 2004,「조선의 여성들 :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 베개.

박주현, 2011, “김만덕 스토리텔링과 문화기획 개발의 방향”, 2011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전국학술대회 : 김만덕 정신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배종태 • 차민석, 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중소기업연구」, 제31권 제1호, 109-128.

변종헌, 2004, “21세기 제주 사회와 여성”, 제주국제협의회 제17차 학술대회 토론자료.

신병주, 2012, “고전의 향기 : 2012.2.20”, 한국고전번역원 고전포럼.

오한숙희, 2011, “김만덕 정신을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2011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전국 학술대회 김만덕 정신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이민수, 2011, “장보고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 「경영사학」, 제26집 제1호, 59-91.

이덕일, 2003,「여인열전」, 김영사.

제주도, 1989,「구원의 여상 김만덕」, 제주도청.

주희춘 • 이희정 • 김태준 • 박성수, 2010, “강진 병영상인에 관한 역사적 재조명”, 「경영사학」, 제25집 제4호, 67-95.

최재석, 1976,「제주도의 친족연구」, 일지사.

한창완, 2011, “김만덕 정신과 문화콘텐츠”, 2011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전국학술대회: 김만덕 정신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한국여성 민우회, 2004.7/8,「함께 가는 여성」.

blog.daum.net/jib17.

blog.daum.net/Zhy5532.

Chrisman, J., A. Bauerschmidt, et al., 1998, The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 An extended model,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3(1): 5-29.

Covin, J. G. and D. P. Slevin, 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a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7-25.

Dess, G. G. and G. T. Lumpkin, 2005, “The Rol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Stimulating Effective Corporate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9(1): 147-156.

Knight, F. H., 1921, *Risk, Uncertainty and Profit*, New york : Augustus M. Kelley. Reprint. 1964.

Lumpkin, G. T. and G. G. Dess, 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ship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Miller, D., 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Timmons, J., 1994, *New Venture Creation :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Boston: McGraw-Hill.

Timmons, J., and S. Spinelli, Jr., 2009, *New Venture Creation :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Boston: McGraw-Hill.

OECD(1998), *Fostering Entrepreneurship*, Paris.

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of Kim Man Deok

Sung-kuk Yang* · Bong-hyu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dentify the entrepreneurship of Kim Man Deok. This paper was divided into two parts : first is the Kim Man Deok's life stages and characteristic of the age, second is the entrepreneurship of Kim Man Deok.

Kim Man Deok 's life was divided into three time periods : fight against fate, as a CEO, donating her possession to society. And the entrepreneurship of Kim Man Deok were examined : personality and characteristics, values and beliefs, skills, behaviors and decisions.

Kim Man Deok(1739-1812), who was living in Jeju Island. She became one of the richest persons living on Jeju Island after overcoming various difficulties in the previous 200 years. Kim Man deok was the first female CEO in Korean history.

Kim Man Deok was a shrewd entrepreneur, who knew how to foresee future trends and stood apart from other great women of the Joseon era. Kim Man Deok's life inspired Jeju residents and remains one of the most respected figures.

〈Key Words〉 Kim Man Deok, Female CEO, Entrepreneurship, Jeju Island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Jeju National University.